경찰 “이별 문제로 잦은 다툼…범행 전 계획 세운 정황”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최아무개(25)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얼굴을 가리고 있다. 연합뉴스경찰이 강남역 교제살인 피의자 최아무개(25)씨가 사건 당일 이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씨를 이르면 1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13일 경찰청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가 (피해자와) 헤어지는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범행 당일 전에 범행 계획을 세우고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정황이 보인다. 우발적 범죄는 아니다”라며 “오는 14일쯤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8일 구속됐다.경찰은 반복되는 ‘교제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형사처벌 이상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 등은 아픈 사건들을 통해서 법과 제도적 논의가 발전되어 왔지만, 교제폭력은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간 것이 사실이다. 여러 기준이나 한계 설정도 아직은 모호하다”며 “경찰 단위에서 나서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이번 사건이 끝나도 법과 제도 방면에서 보다 진보된 논의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경찰은 추후 최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를 시도할 예정이다. 사이코패스 검사는 범죄경력, 자존감, 죄책감, 감정, 성생활, 통제력 등 다양한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구성됐다. 국내에선 40점 만점에 통상 25점을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사이코패스 검사에 피의자 동의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대상자의 협조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약 1시간30분 동안 최씨와의 일반면담과 심리검사를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역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다만 경찰은 사이코패스 검사 등 정신 분석이 수사의 전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는 수사관이 하는 것이고, 수사상 벽에 부딪히거나 도저히 해결이 어려운 심리 상태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때 프로파일링이나 사이코패스 검사가 필요한 것”이라며 “프로파일링 등이 모든 걸 해결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